

7935억 vs 655억...허울뿐인 '투 포트'

〈부산·광양 양항체제〉

정부 예산 부산·인천 집중...광양항 컨 물동량 인천항에 밀려

내년 예산도 부산항 1770억·광양항 215억...인사도 영남 편중

광양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부분에서 3년째 인천항에 밀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관심과 예산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에서도 광양항의 예산 확대가 드러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양항의 새로운 도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7일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은 20년 동안 부산항에 이어 컨테이너 물동량 2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 2015년부터 시설 확장 등을 통해 물량을 늘리기 시작한 인천항에 역전됐다.

광양항은 지난 2015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보다 0.5%감소한 232만7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인천항 237만7000TEU에 뒤졌다. 부산항은 1946만9000TEU수준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역시 광양항은 222만4000TEU로, 인천항 267만7000TEU에 비해 뒤져 2년째 3위로 처져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부산항이 1364만8079TEU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항과 광양항이 각각 2·3위로 뒤를 이었다. 인천항은 올해 누적 처리 컨테이너 물동량은 198만3905TEU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반면 광양항은 같은 기간 145만711TEU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광양항이 인천항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부산과 인천항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년) 부산항 예산은 7935억원, 인천항 예산은 4510억원인 반면 광양항 예산은 655억원에 그쳤

다. 부산항과 인천항이 광양항보다 각각 12배, 7배가 많았다.

내년도 예산안 또한 부산항이 1770억원, 인천항 1045억원인데 반해 광양항은 215억원에 그쳤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안의 항만별 사업비 투자 계획에서도 전체 투자액(14조412억원)의 34%(4조9847억원)는 부산항에, 11.3%(1조6526억원)는 인천항에, 4.3%(6347억원)는 광양항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향후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한 투자액 계획이 광양항보다 각각 8배, 2.6배가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주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산항을 글로벌 환적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다른 항만들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 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양항 제2도약을 위해 개발이 중단된 부두 및 수역시설 등 기반시설확충을 비롯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이전 추진, 조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윤선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전일빌딩 시세차익 87억

6년 만에 광주시에 되팔아... 10년 분납 이자 포함 111억 수익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매입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을 6년 만에 광주시에 되팔면서 8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광주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의 매입 대금 225억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년 동안 분납할 계획이어서 도시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24억5000만원의 이자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도시공사는 전일빌딩 매각으로 시세차익과 이자수익을 합쳐 총 11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17일 광주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전일빌딩 매입 변경안을 심의, 전일빌딩을 249억5000만원(이자 포함)에 사들여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구 금남로 1가 1-1외 3필지(부지 2252㎡·건물 2만132㎡)에 들어선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총탄 흔적 등이 나오면서 광주시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전일빌딩의 부지 및 건물을 225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18일 시의 '권유'로 3차 경매에 참여해 전일빌딩을 138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최근 별다른 수익이 없던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매각에 따라 87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인근 땅값이 상승한 덕분이다. 도시공사는 또 광주시가 매입 대금을 10년 동안 나눠서 내기로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자(연 1.59%)로 24억5000만원도 추가로 받게 됐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8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소유권을 광주시

로 이전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내려지자 광주시에 전일빌딩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국비 지원의 갖다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대금 일시불 완납 대신, 10년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서 도시공사는 24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도 거두게 됐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669억50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130억원, 시비는 539억5000만원이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다수 대형 사업들처럼,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늦게 나올 우려가 컸다.

이에 광주시는 사업 초기 전일빌딩 리모델링 총사업비에 건물과 토지 매입비를 아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낮춤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669억5000만원이었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비는 공사비(358억원), 철거·감리비(30억원), 시설장비비(32억원) 등 420억원 그리고 건물과 토지 매입 계약금 22억5000만원(2018년 납부)을 합쳐 442억5000만원이 됐다. 기존 총사업비에서 토지와 건물 매입대금 그리고 이자인 22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전일빌딩 리모델링에 필요한 국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건물과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420억원을 총사업비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총사업비에 전일빌딩 건물·토지 매입비 전체를 넣지 않고 계약금만을 포함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험설계사·화물차 운전자 등 노조설립 가능

앞으로 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비보조원(캐디), 자동차 판매원, 화물차 운전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노동 세력 출현이 가능하게 돼 향후 노동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7일 전했다. 특수고용직은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계약해지·해촉으로 쉽게 해고될 수 있다.

골프장 경비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 010-3605-5000

적격자를 뽑지 못해 개관 2년여 동안 공석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공모에 무려 20여 명이 지원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亞문화전당장 공모 20명 지원, 급증 배경은? 도청복원 등 복잡한 현안 타결

서류심사 광주·전남 출신 3명 확정설 나돌기도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문화전당장 공모 서류접수를 마감, 18일 1차 서류 전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장 선임절차는 인사혁신처에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압축, 문화부에 해당자를 통보하면 문화부 장관이 적격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부처가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최소 20명에서 26명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부가 '적격자 없음'으로 4차례 부산시진 전당장 공모에서 응모자가 한 자릿수였던 점에 비

하면 이례적이다. 서류심사 결과조사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 3명이 확정됐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직 서류전형 합격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가 거론돼 당황스럽다"며 "현재로서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공모자 급증의 이유로 문화전당 내 도청복원 복원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타결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문화전당 민주평화교원회에 포함된 5월 유적지인 옛 도청복원 복원을 정부가 전폭 수용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5월 단체들이 복원 촉구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문화전당 공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이번 공모에는 광주·전남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도 상당수 응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부 안팎에서 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는 만큼 광주 사정에 밝고 지역과 인적 네트워크가 두터운 인사를 찾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새정부 창업 공신과 선거에서 활약한 문화계 인사들이 농행상을 기대하고 응모했을 것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문화전당장 선임절차는 11월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서류전형, 면접 절차를 마치고 전당장 후보자들을 선발해 그 명단을 문화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샵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